

## 3년 만에 광화문으로 돌아온 동아마라톤

국내 유일 플래티넘 라벨 대회에 관심 집중...대회 신기록 5개 쏟아져

# SEOUL MARATHON 2022



2022 서울마라톤 겸 제92회 동아마라톤에 참가한 국내 엘리트 선수들이 승례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전영한

광화문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린 '세계인의 달리기 축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출발선에 선 사람들의 얼굴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다. 2022 서울마라톤 겸 제92회 동아마라톤이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

4월 17일 오전, 광화문에서는 코로나19를 저 멀리 날려버릴 듯한 경쾌한 출발 총성이 울렸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임대기 대한육상연맹 회장, 피터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 최재형 국회의원 등 6인의 징소리에 맞춰 울린 3년만의 총성이었다.

9개국 131명의 엘리트 선수들은 대한민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 10개 뿐인 플래티넘 라벨 레이스를 펼쳤다. 코로나19로 수년째 대부분의 마라톤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돼 온 상황인만큼 이번 대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남자부 바이(에티오피아)는 2시간4분43초, 여자부 조앤첼리모 멜리(루마니아)는 2시간18분04초로 우승하며 남녀 모두 2022년 코스 레코드를 작성했다. 특히 멜리의 기록은 역대 세계랭킹 11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이었다. 4월 18일 열린 세계 최고(最古)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기록(남자 2시간16분51초, 여자 2시간21분1초)과 견주어봐



9개국 131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서울 광화문 앞 출발선을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홍진한

도 흠집을 데 없는 기록이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동아마라톤이 세계 10대 마라톤으로 자리매김한 게 실감난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회 신기록을 경신한 선수는 총 5명(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남자는 6년 만, 여자는 16년 만에 배출됐다. 2011년 보스턴마

라톤에서 4명의 대회 신기록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선수가 대회기록을 경신했다.

우승한 두 선수 못지않게 화제가 된 선수는 남자부 3위로 골인한 다니엘 페레이라 두 나시멘투(24세·브라질)였다. 그는 비(非)아프리카 선수 가운데 최고기록을 쓰며 남미, 브라질 최고기록인 2시간4분51초를

이루내 국민 영웅이 됐다. 남미의 신기록이 24년 만에 지구 반대편 동아마라톤에서 경신했기 때문이다. 루이스 영히기 소브레이라 로베스 주한 브라질대사는 다니엘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1시간여 환담을 나눴다. 삼바의 나라답게 넘치는 에너지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던 다니엘 선수는

6만여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그의 팔로잉 덕분에 서울마라톤 인스타그램 계정은 브라질인 팔로워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게시글마다 포르투갈어가 넘쳐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 역시 브라질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 열기로 뜨거웠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16, 17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린 마스터스 부문은 2만 1000여 명이 참가해 동아마라톤의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러너들에게는 아디다스 티셔츠와 캠핑 아이템 '제로그램 라면 팬'이 제공됐다. 덕분에 완주 후 라면 시식 사진을 인증하는 이색 릴레이가 SNS로 전파되기도 했다.

오프라인 대회를 치르지 못한 마스터스 부문 참가자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대회 측은 '결승 아치 골인 포토존'을 운영했다. 잠실 주경기장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결승 아치로 골인한 참가자들에게 완주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한 것. 1000명 가량의 2030 MZ러너들이 이곳에 다녀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마라톤 접수 플랫폼인 '동마클럽'이 성공적으로 론칭돼 새로운 사업 진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눈으로 확인한 전쟁의 참상...종군 취재 시스템 고려 계기도”

## 김윤중 파리 특파원의 우크라이나 전쟁 현지 취재기

“아빠! 절대 가면 안돼!”  
3월 마지막 주. 전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준비하다 딸에게 들려버렸다. 딸은 취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보고 문자 그대로 ‘난리’를 쳤다. 내가 사인한 서약서에는 ‘우크라이나 방문·체류 중 발생하는 안전 상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외교부 문서에는 ‘사망을 대비해 ‘전쟁특약보험’도 가입하라’는 친절(?) 설명도 적혀 있었다. ‘가지 말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별일 없을까?’라고 애써 웃으며 신청서, 취재계획서 등 10장이 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다.

한국 정부는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1항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는 외교부 허가를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

안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게 전쟁 취재다. 그러나 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전쟁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취재해보고 싶었다.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CNN, BBC 등 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답답했다. 이명건 편집국장, 윤완준 국제부장도 현장 취재 추진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현지 취재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2개월 전에 한 약속 때문이었다. 1월 말, 기자는 러시아 국경에서 30km 거리의 북부 거점도시 하르키우 현장을 취재했다. 당시 친해진 우크라이나인들을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3월 초 폴란드 국경에서 다시 만났다. 하루아침에 피난민이 된 이들은 길가에 쌓인 시신 사진들을 보여주며 기자에게 “더 이상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실상을 보도해달라”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뒤 3월



공습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몸을 숨기는 체르니우치 시내 지하 병커의 모습



3월 30일 우크라이나 남서부 거점 도시 체르니우치 시내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오른쪽)이 AK소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기자(왼쪽)도 10여 명의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28~30일 우크라이나 남서부로 들어갔다. 루마니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남부 포루브네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았다. 검문소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군 미사일 포격이 시작돼 국경 검문이 강화된 상황이었다. ‘예외적 입국 허가서’, ‘여권’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프랑스 정부가 준 기자 증을 보내고 취재 경위를 설명한 후에야 3시간 만에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다.

처음 도착한 남서부 도시 체르니우치의 걸목은 평화로워보였다. 그러나 이내 착각임을 알게 됐다. 하루에만 공습 사이렌이 수십 번씩 울렸다. 남서부 상공에 미사일, 비행기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울리는 경보였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시민

들은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하병커로 대피했다.

취재는 기본적인 것조차 쉽지 않았다. 시내를 촬영하려 하자 경찰, 민병대가 달려와 막았다. CNN 등에서 우크라이나 주요 시내를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요 건물이 러시아 군 공격 목표가 돼 포격으로 파괴됐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이 없었다. 대신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AK소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 10여 명과 함께 사격 훈련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기자의 동참이 못마땅할 법도 했지만 이들은 “러시아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려 달라”며 흔쾌히 동참을 허락했다.

취재를 하는 동안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

지진 않았다. 그러나 2번의 우크라이나 방문, 20여 일 간의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일대 취재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무엇보다 절감한 것은 삼시세끼 굶지 않고,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며, 학교·직장에 다니는 일상의 소중함이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를 박탈당한 채 오늘도 다른 나라와 지하를 떠돌고 있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도 두려운 지점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 언론의 종군 취재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종군 취재는 그간

기자가 해왔던 모든 취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맨땅에 헤딩’이 요구됐다. 일단 종군 취재의 장소는 낯선 이국땅이고, 도움을 받을 한국 관계자들조차 전쟁으로 철수해 전무한 상태다. 호텔 예약조차 쉽지 않아 민박을 잡아야 하고 이동, 현장 섭외 등 기본적인 취재도 고비가 첩첩산중이다. 특수 지역의 경우 영어나 불어도 통하지 않는다.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서는 믿음직한 통역을 기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모든 게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전쟁 피해국 국민들 마음에 다가서려 한 게 취재에 큰 도움이 됐다. 침공을 당한 현지 시민들 중에는 직접 입대해 싸울 순 없지만 전쟁의 실상을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 알려 국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섭외하니 CNN, NYT 등 주요 외신에도 보도되지 않은 생생한 현장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위험 지역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기자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종군 취재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타국 기자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CNN 기자들 주변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해외 유력 언론들은 자체적인 종군 취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쟁 발발 시에는 매뉴얼대로 취재가 진행되며, 자국 정부는 물론 전쟁 중인 각국 정부와도 활동영역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이 때문에 CNN, BBC 기자 주변은 포격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취재 전에는 종군 취재는 나와 상관없는 먼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록 국내 언론도 언제든지 전장에 뛰어들어야 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종군 취재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좋겠다.

편집국 국제부 김윤중

# 조식 배달 서비스 시작...탕비실도 업그레이드

## 사원들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아침 컨디션 유지에 도움”

동아일보가 아침 시간대 바쁜 업무로 구내식당의 조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들을 위해 근무 층까지 별도의 조식 메뉴를 구성해 배달하는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이미 2000년부터 광화문 등 사옥 구내식당에서 오전 8시부터 9시반까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일부 사원들은 업무 등으로 해당 시간대 식당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를 만든 것.

새로운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는 4월부터 시작했다. 기업 조식 서비스 전문 업체를 통해 당일 수제 조리한 아침 식사를 매일 편집국과 AD본부 사무실로 직접 배달한다. 출근한 사원들은 각 층 탕비실 테이블에 세팅된 메뉴를 자리로 가져와 업무를 보며 먹을 수 있다. 하루는 밥류(주먹밥,

유부초밥 등 6종), 다음 날은 샌드위치류(12종)가 번갈아 과일과 함께 제공된다.

기존의 구내식당 조식은 전날 늦게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오전 9시 이후 출근하는 편집국 데스크들이나 오전 시간대에 고정 회의가 있는 AD본부 사원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동아일보는 모든 사원들이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찾아가는 조식’을 고안했다. 앞서 시작된 편집국 야근 직책자택시 지원이 퇴근길 안전을 책임진다면,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는 사원들의 아침 건강을 챙겨주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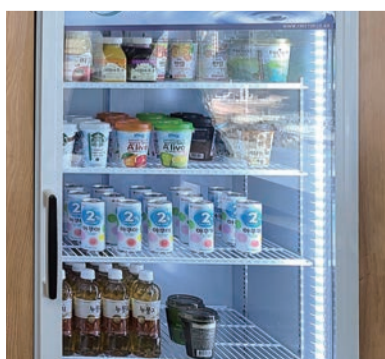
직원들의 호응은 높다. 편집국 정책사회부 박재명 차장은 “매일 새로운 메뉴가 근무하는 층으로 직접 배달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아침마다 오전 회의 준비로 식사를 거르곤 했는데, 이제는 간

편하게 끼니를 해결 할 수 있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에 맞춰 동아일보와 채널A 탕비실 설비도 업그레이드 됐다.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보도본부에 ‘미니카페’ 콘셉트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 정수기는 모두 신형으로 바꿨고, 기존의 냉장고도 통유리형 쇼케이스 냉장고로 교체한 뒤 각종 음료와 스낵을 가득 채웠다. 캡슐형 커피머신과 컵얼음이 비축된 냉동고도 새로 마련됐다. 사원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근무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사원 복지가 향상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영지원국 총무팀 김지선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위)와 새로워진 탕비실 설비(아래)



선을 넘는 기자들

# “차에 진심인 저의 솔직담백한 모습, 기대하세요”

## 여인선 채널A 앵커, 디지털 콘텐츠 통해 ‘티 라이프’ 공개

“중국 복건성 무이산에서 나는 무이암 차예요. 향수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향이 좋아요.”

여인선 채널A 보도본부 뉴스A 앵커 자리에는 항상 다구(차를 마시는 용기)가 마련돼 있다. 차를 우리는 솜씨도 능숙하다. 방송을 앞두고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때 마다 한 잔씩 마신다고 한다.

여 앵커는 2년 전 <차라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써 출판한 차 애호가다. 책을 쓰기 위해 2년 동안 중국, 일본, 대만 등지를 돌며 공부도 했다. 중국 원안성 산골마을에 갔을 때는 밤마다 마을 사람들과 술과 차를 마셨다. ‘차 맛있다’, ‘건배’ 등 몇 마디로도 몇 시간이 재미있게 흘러갔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남원, 순천 등 아생차 재배지를 주로 찾는다.

그가 차에 흠뻑 빠지게 된 것은 4년 전부터다. “지인들을 통해 찾집, 개인 다실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차 마시는 분들 중 달고 싶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고운 다구를 고르고 벽에 어울리는 그림을 장식해요. 저도 그분들처럼 차라는 취향을 가꾸고 싶었어요.”

여 앵커는 집에 ‘인선다실’도 만들었다. 여기에 할아버지의 낡은 전축과 좋아하는 그림을 두고 가족들과 떨어져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글씨 연습을 한다. 그는 “차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대만의 동방미인 차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부진자’라는 별레가 입을 먹어서 더 특별한 단맛이 나는 차예요. 상처가 더 단

맛을 내준다는 점이 상처받거나 힘들 때 마다 위로가 됐어요.”

여 앵커는 최근 경영전략실 디지털콜라팀 한수희 CD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촬영을 시작했다. 차를 마시는 취향을 갖고 있는 회사 선후배가 함께 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는 컨셉트이다.

“첫 촬영에서 직접 차잎을 따고 차를 만들었어요. 험난한 산길을 올랐지만 아름다운 자연경도 보고 ‘불망’을 하면서 회사 생활이나 삶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눴어요.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 밖의 여인선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여 앵커.

“일할 때는 냉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평소에는 멍 때리고 아날로그적인 것을 참 좋아해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많



보도본부 뉴스A 여인선 앵커

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콘텐츠를 통해 추천해줄 만한 차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우문현답이었다.

“녹차나 홍차가 아니라 스틱 커피, 어묵

국물 티백이어도 괜찮을 거예요. 잠시 마음 설 자리 내주는 시간에 함께하는 차야말로 최고의 차가 아닐까요?”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병규

## DDMC에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 오픈

### 독창적이고 탁월한 콘텐츠 제작에 활기

상암 DDMC 4층에 디지털 콘텐츠 전용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콘텐츠X 스튜디오’다.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콘텐츠를 생산해 내겠다는 뜻이다.

‘콘텐츠X 스튜디오’는 바닥과 벽의 경계가 보이지 않아 무한한 공간처럼 보이는 호리존 스튜디오다. 너비 7m, 높이 4m로 무대 공간도 여유롭다. 크로마키 촬영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초록, 파랑, 검정 3색의 전동 스크린이 설치돼 있다. 촬영 중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LED판 조명 24개와 스탠드 조명 2개도 구비했다. 대기실, 분장실, 화장실도 함께 마련해 촬영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콘텐츠X 스튜디오’는 그룹웨어인 지니어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스튜디오를 사용한 제작진은 “스위치만 켜면 세팅이 완성돼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방송용 스튜디오가 밀집한 상암 DDMC에 ‘콘텐츠X 스튜디오’를 설치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채널A만의 독창적이고 탁월한 콘텐츠를 활발하게 제작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채널A는 모든 직원이 보다 탁월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제작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경영지원본부 DDMC관리팀 최윤석



‘콘텐츠X 스튜디오’는 넓은 무대와 각종 조명 시설, 모니터 등을 갖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 지면·뉴스 벗어나 새로운 모습 공개하는 기자들

### 취재·지식·일상을 쉽고 재밌게 공유하고 싶은 기자들의 열원 담아 제작



채널A 보도본부 박정서 기자가 <도쿄의 정서> 촬영을 하고 있다.

“(유학원에서) 비행기표를 늦추라는데요. 근데 이거 계속 찍나요?”

동아미디어그룹 DNA 프린터어 1기 연수생으로 선발된 뒤 일본 유학을 눈앞에

둔 채널A 보도본부 박정서 기자. 3월 말 비행기표를 예약했지만 3월 초까지 일본에서 체류허가 서류가 오지 않아 가슴을 졸인다. 박 기자가 3월부터 촬영 중인 디

지털 콘텐츠 <도쿄의 정서> 내용 일부다.

박 기자는 일본 와세다대학원에 진학해 2년 동안 한국과 일본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유학 준비 과정부터 일본 도쿄로 건너간 뒤 일상을 <도쿄의 정서>를 통해 생생하게 담고 있다. <도쿄의 정서>는 5월 채널A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콜라팀 이 기자와 협업해 만든 첫 뉴스룸X유튜브 콘텐츠이다.

<도쿄의 정서>를 시작으로 동아미디어 그룹 기자들이 주축이 된 디지털 콘텐츠들이 줄줄이 론칭을 기다리고 있다. 기자들은 지면, 혹은 방송뉴스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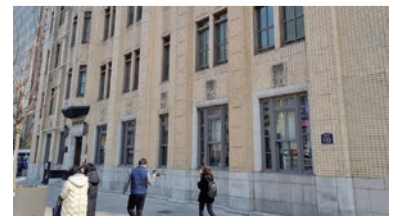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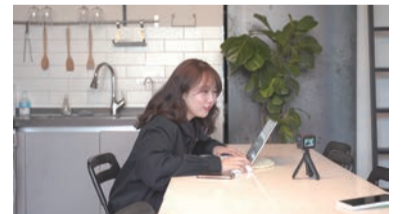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시나리오학과에 재학 중인 동아일보 편집국 문화부 이지훈 기자, 통번역 자격증을 보유한 김재희 기자의 <선을 넘는 기자들(7월)>이 곧 공개된다. 첫 화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이후에 본업을 마친 뒤 다른 일에 열중하는, 일상 속 ‘선을 넘는 사람들’을 차례로 조명할 계획이다.

올해 동아미디어그룹 콘텐츠 공모전

‘잉스’에서 2위를 차지한 <대물쇼>도 한창 준비 중이다. 덩치 큰 채널A 보도본부 영정원 기자가 시청자들의 작고 소중한 호기심까지 해결하기 위해 방방곡곡 뛰어다니며 대신 물어봐주는 컨셉트이다. 영 기자는 문화스포츠부 기자 시절 배구선수 김연경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배구 팬들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설문해 대신 물어 보며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흥미 모두 충족시켰다. 영 기자는 당시 노하우를 200% 활용하겠다는 각오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점차 자신의 취재 내용이나 경험을 쉽고 재밌게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다. 동아미디어그룹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기자들이 주축이 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콜라팀은 기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프로세스를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콘텐츠가 쌓여갈 수록 동아미디어그룹만의 독창적인 디지털 콘텐츠 세계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전략실 디지털콜라팀 여현교





## 보도 전문성 강화 사내 아카데미 <윙스101클래스> 성황리 진행

### 각 분야 전문가 초청해 강의...첫 주제는 경제·산업

기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줄 사내 아카데미 <윙스101클래스>가 편집국에 개설돼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윙스101클래스>는 취재 분야별 전문 지식을 키워줌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윙스101클래스>를 만든 편집국은 첫 주제를 경제·산업 분야로 정했다. 주 1회 총 11회 분량의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해당 분야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 전문 지식을 다루고 있다. GDP,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부터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업리포트 읽는 법, 금융감독원 공시 및 경제통계(ECOS) 시스템 활용법 등을 다뤘다. 강사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섰다.

수강신청은 동아일보 기자 뿐 아니라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동아일보 기자 30명과 채널A 기자 2명을 포함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미래전략연구소 등에서도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

4월 말까지 진행된 총 여섯번의 강의

에 대해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설문조사에서 수강생들은 83%가 '매우 도움 됐다(44%)'나 '도움 됐다(39%)'고 답했다. 강의에 참석했던 편집국 산업1부 박도영 기자는 "1회 거시경제 강의는 대학생 시절 들었던 모든 경제학 강의보다 더욱 좋았다"고 평가했다.

편집국은 <윙스101클래스>가 1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강자들의 커리어 플랜을 관리할 계획이다. 11회 강의 중 9회 이상을 성실하게 출석한 수강자에게는 편집국이 제작한 <윙스101클래스> 이수증도 제공한다. 이수증 획득 여부는 향후 수강자가 관련 부서 배치를 희망할 경우 인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김현지

## 동아미디어그룹 NFT 공모전 <DOT> 개최

동아미디어그룹이 NFT 아트 공모전 <DOT>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한다. <DOT>은 '동아미디어그룹 디자인 영역에 새로운 정점을 찍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새로운 디자인 경험을 전사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마련한 공모전이다.

공모전 주제는 'SNS 프로필을 선점(DOT)할 PFP(Profile Picture)'다. 사람 형태의 아바타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생물까지 사람들의 SNS 프로필을 채울 그림이라면 모든 형태의 디자인이 응모 대상이다. SNS 프로필이라는 공간에 어울리기만 하면 된다.

우수작은 PFP로 만들어준다. 최근 NFT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형식 중 하나인 PFP는 프로필 형태의 디지털 아트 NFT로, SNS 프로필로 설정하기 좋은 캐릭터 형태의 이미지다. PFP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 판매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창작자에게 'N차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에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PFP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DOT>을 통해, 그룹



내 디자이너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미디어그룹 기존 IP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 중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5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5월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달의민족' 2만 원 기프트콘을 준다.

상금은 대상 111만 원, 최우수상 60만 원, 우수상 7만 원이다. 우수작은 PFP 민팅(NFT화 작업) 지원을 받는다. 민팅을 통해 성과가 발생하면 우수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지니어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 <금쪽같은 내새끼> 깜짝 등장 '흑쪽이' 화제

4월 1일 만우절 날 <금쪽같은 내새끼> 공식 SNS에서 마스코트인 말하는 코끼리 '금쪽이'가 사라졌다. 대신 금쪽이와 닮았지만 비틀어진 표정을 한, 검은 그림자 같은 '흑쪽이'가 등장했다. '흑쪽이'는 '금쪽이'의 사촌기 버전이다.

모범생 '금쪽이'와 달리 '흑쪽이'는 허세와 비딱함을 장착했다. 공식 SNS에서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놀이 중 자신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소개했다. '흑쪽이'의 탄생은 모든 세대를 아우

르는 <금쪽같은 내새끼>의 인기에서 비롯됐다. 인터넷에서는 2030세대가 주도하는 '금쪽이' 밈(유행)도 한창이다. '금쪽이' 사진과 함께 "너는 왜 이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 거야?", "내일이 월요일인데 기분이 어때?" 등 글을 올리고 서로 놀리며 장난을 주고받는다.

'흑쪽이'는 깜짝 등장을 넘어 <금쪽같은 내새끼> 본방송에서 본격 활약할 계획이다. '흑쪽이'를 모델로 한 굿즈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흑쪽이'의 활약으로



<금쪽같은 내새끼>가 한 걸음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기대해 본다.

제작본부 2CP 윤혜지

## <쇼윈도> 터키편 리메이크 버전 공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린 <쇼윈도: 여왕의 집>(이하 쇼윈도)

의 터키편 리메이크 버전이 공개됐다.

<쇼윈도>는 지난 3월 터키 제작사 Medyapim과 포맷 리메이크 계약을 맺고 '착함', '선량'이란 뜻인 <YILIK(일리크)>로 재탄생했다. <일리크>는 4월 15일 첫 예고영상이 공개돼 7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9만 회를 넘기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지에서는 4월 29일부터 Turkey FOX 채널을 통해 방영 중이다. 주인공인 한선주와 신명섭 역에는

현지의 10년차 베테랑 배우들이 캐스팅됐다. <쇼윈도>의 스토리와 이들의 열연 조합에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터키에서는 <쇼윈도>뿐 아니라 <거짓말의 거짓말>도 포맷 리메이크 계약이 체결돼 현재 제작 중이다. 터키편 <거짓말의 거짓말>은 내년 하반기 중 터키 Star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서현아

## 동아일보 강은지 기자 녹색기후상 수상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강은지 기자(사진)가 4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언론부문 우수상(방송통신위원회장상)을 수상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하는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강 기자는 2019년부터 환경 분야를 취재하며 '과대포장 OUT!' '이제는 Green Action!' 등을 보도했다.

###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슬아 / 동아일보  
출판국

- ① 저널리즘을 재학 때부터 정치 보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30이 찾아 읽는 정치 기사를 쓰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먼 훗날 '한국의 데이비드 브로더'라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인턴 기간에도 주 3회 이상 근력운동을 했습니다. 흘린 땀만큼 변화하는 몸이 신기해 최근 흥미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다진 체력이 앞으로의 기자 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은 / 동아일보  
출판국

- ①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겠습니다.
- ② 뚜벅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곳은 새로운 대로 익숙한 곳은 익숙한 대로 좋습니다.



김선민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동아미디어그룹 안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 구성원분들께도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HRD 담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 그림책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다정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그림책의 매력을 닦고 싶습니다!
- ③ 한국농률협회컨설팅



이지혜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인재경영팀의 인재로 성장하여 대체 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HRDer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이름처럼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뮤지컬과 콘서트 관람을 좋아하는 저는 요즘 다양한 공연의 티켓팅 공지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퇴근 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웃는 남자>를 보고 싶습니다!
- ③ IGM 세계경영연구원



정시은 / 채널A  
경영전략실

- ① 안녕하세요!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에 새롭게 합류하게된 정시은 CD입니다! 저는 동아미디어그룹의 강력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동아와 대중의 contact를 만드는 Creative Director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저만의 업무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 중 리프레쉬 시켜줄 데스크 용품들을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에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니치향수 브랜드들을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 ① 좋은 팀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책임감과 열정을 지닌 실무자로 성장하겠습니다.
- ②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카페와 맛집을 찾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카카오



고형석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 ① 모든 업무에 있어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임하는 자세로,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IP 상품을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 ② 정상에서 일출을 맞이하는 재미로, 등산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곳들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최혜민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 ① 지금 느끼는 이 설렘과 열정을 잊지않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업무 중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어 채널A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 ② 날씨 좋은 날, 테라스나 루프탑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날씨가 좋아져서 올해는 어디 루프탑을 가면 좋을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 ③ LA Edgemin